

제 1 교시

고전시가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公無渡河    임아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이제 임을 어이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나)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아롭 나토샤온  
 즈시 살쫂 디니저  
 눈 돌칠 스이에  
 맛보옵디 지소리  
 낭(郎)이여 그릴 므스미 녀을 ㉡길  
 다북 므술히 잘 밤 이시리  
 <양주동 역>

간 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내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뵈도록 하리이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현대어 역>

1.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화자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한 특정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지칭하여 그 대상이 근심의 원인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반어적 표현으로, (나)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 (나)는 촉각적 심상으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꿈꾸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상대방과 재회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겪게 될 비극적 사건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 ④ ㉠과 ㉡의 등장으로 인해 화자들은 상대방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
  - ⑤ ㉠에는 갈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에는 갈등을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담겨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모죽지랑가」는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의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 있다.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화랑이었고, 득오는 죽지랑의 낭도였다. 어느 날 득오가 익선이라는 관리에게 급히 징집되어 죽지랑에게 미처 알리지도 못하고 힘든 부역에 동원되었는데, 득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죽지랑이 이 사정을 알고 직접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득오를 찾아가 위로하였다고 한다. 일연은 득오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하여 지은 노래라 설명하며 이 작품을 기록해 두었다.

- ① ‘봄’은 득오가 죽지랑과 함께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한때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죽지랑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득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겠군.
- ③ ‘아롭 나토샤온’ 얼굴은 죽지랑의 훌륭한 인품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살쫂’는 죽지랑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득오의 자괴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은 죽지랑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득오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나)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구운 밤 닻 되를 삼고이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짝 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돌아 짝 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2연>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요이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3연>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그 옷이 다 헐어시아  
 그 옷이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4연>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츠리잇가  
 즘든 해를 외오곰 여신들  
 즘든 해를 외오곰 여신들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6연>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접주하요이다: 접붙입니다. \*철릭: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4.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5. <보기>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대답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가시리」의 ‘설은 님’은 ‘서러운 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나를 서럽게 하는 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서러워하는 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어느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학생:** \_\_\_\_\_

- ① 2연에서 어찌 살라고 하느냐고 애원한 것을 보면 임과의 이별로 화자는 난처하고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니, ‘나를 서럽게 하는 입’이라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② 3연에서 화자가 입을 잡아 두고 싶다고 하고 있으니, ‘나를 서럽게 하는 입’이라 말하며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4연에서 화자가 임에게 가자마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를 서럽게 하는 입’이라 말하며 임과 헤어져 있는 시간의 괴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1, 2연에서 임의 행동이 어떤 것을 버리고 가는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서러워하는 입’이라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⑤ 4연에서 화자가 임에게 돌아오라고 당부하면서도 그를 보내는 것은 임에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러워하는 입’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들은 시간 의식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 왔던 시간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과 상대방의 지난날에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기대, 사랑하는 상대방을 곁에 두고픈 소망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 ①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 온 시간이 미래에 이어지지 못할 것임을 느끼고 있군.
- ② (가)의 2연에서 화자는 불안감에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지난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③ (가)의 4연에서 화자는 다시 만날 날을 앞당겨 입을 어서 곁에 두고픈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의 2~4연에서 화자는 앞으로도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6연에서 화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 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①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탸다

① 뜻짐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짖느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니 곁의 무르리

하늘히 이저신 제\* 므슴 술(術)로 기워 낸고  
 ②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바치\* 일워 낸고  
 옥황께 슬와보자\* 흐더니 다 묻흐야 오나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이저신 제: 이지러졌을 때.  
 \*엇던 바치: 어떤 공인(工人), 목수. \*슬와보자: 여쭙어보자.

(나)  
 ③ 꿈으로 차사(差使)\*를 삼아 먼 데 님 오게 하면  
 비록 천 리라도 순식(瞬息)에 오련마는  
 ④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울동말동하여라

-이정보

\*차사: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대구적 표현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면서 '군선'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있다.
- ② ㉡: 공간의 이동에 따른 상황의 변모 양상을 제시하며 '옥황'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구체적 공간을 언급하고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엇던 바치'가 지닌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구체적 공간을 언급하고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엇던 바치'가 지닌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님'이 보일 행동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8. <보기>는 작가가 (가)를 지은 후 한시로 바꾸어 쓴 것이다. <보기>를 짓기 위해 창작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할 때,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꿈인가 생시인가 한번 백옥경에 오르매 하늘문이 열리니  
 夢耶眞耶一上玉京閭闔開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이 꺼리도다  
 玉皇靑眼群仙猜  
 두어라 오호연월을 한가로이 배회하도다  
 已矣乎五湖煙月閑徘徊  
 야인이 나비로 화하여 나풀나풀 십이루로 날아드니  
 野人化蝴蝶翩翩飛入十二樓  
 옥황은 웃음 띠셨으나 군선이 꾸짖는구나  
 玉皇含笑群仙尤  
 어즈버 백만억 창생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  
 吁嗟乎萬億蒼生問何由  
 구천(九天)이 이지러졌을 제 무슨 기술로 기워 내었는고  
 九重天有缺時補綴用何謨  
 백옥루 중수하던 날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 내었는고  
 白玉樓重修日何工成就乎  
 옥황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물을 겨를 없는지라 돌아와  
 하릴없이 한숨짓노라  
 欲問玉皇無暇問歸來空一吁

- ① 옥황이 있는 장소는 (가)와 마찬가지로 '백옥경'으로 유지하되, <보기>에서는 옥황을 만나기위해 지나가야 하는 곳을 추가해야겠군.
- ② 옥황을 만난 후 화자의 반응은 (가)와 마찬가지로 '오호연월'과 관련지어 제시하되, <보기>에서는 화자의 생각 대신 행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체해야겠군.
- ③ 옥황을 만나는 장소는 (가)와 마찬가지로 '십이루'로 제시하되, <보기>에서는 화자를 의미하는 인물이 변신의 과정을

거쳐 옥황을 만나는 상황으로 교체해야겠군.

- ④ 옥황과 나누고 싶은 대화 내용은 (가)와 마찬가지로 ‘백옥루’의 중수와 관련지어 제시하되, <보기>에서는 묻고 싶은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를 추가해야겠군.
- ⑤ 옥황을 만나고 난 뒤의 생각은 (가)와 마찬가지로 ‘두어라’, ‘어즈버’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제시하되, <보기>에서는 옥황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추가해야겠군.

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로, 작품 속 인물들은 꿈속에서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현실에서 억제된 만남과 바람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꿈속 상황이 자신의 현실 상황과 차이가 없거나, 꿈에서 깨어난 후의 상황이 꿈을 꾸기 전과 변함이 없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에 꿈은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① (가)의 화자가 꿈을 통해 옥황이 있는 ‘백옥경’을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꿈에서 만난 군선의 반응을 본 후 ‘오호연월’이 자신의 분수임을 깨닫고 있다는 점에서, 꿈이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가 꿈에서 만난 옥황에게 ‘백만억 창생’의 일을 물으려 한다는 점에서, 꿈이 화자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입에게는 다른 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현실 상황과 꿈속 상황 모두 입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가 꿈에서는 천 리나 되는 먼 곳에 있는 입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꿈이 현실에서의 바람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옹시여」는 신흠이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되어 김포로 추방당한 뒤 정치적 좌절감과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 의지 등을 토로한 연작시이다. 작품의 창작 동기는 그가 남긴 「방옹시여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에 진력났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지난날의 부귀와 공명은 한갓 겨와 쪽정이나 두엄 풀같이 쓸데가 없는 것이어서 오직 사물에 접해 노래하면 풍부\*가 수레를 내려 호랑이를 잡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방옹시여」는 모두 3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적 흐름을 시상 전개的基本 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시상 전개의 틀은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시간 관련 표지어**를 주목해 보면 발견할 수 있다. 작가는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시적 표현의 다채로움을 구현하고 있다.

(나)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님 있으니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제1수>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한 제 송죽(松竹)만 푸르렀다  
풍상(風霜) 섞어 친 제 네 무슨 일 혼자 푸른가  
두어라 내 성(性)이 어니 ㉠ 물어 무엇 하리 <제3수>

어젯밤 눈 온 후(後)에 달이 좇아 비추었다  
눈 후(後)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엇더타 천말부운(天末浮雲)\*은 ㉡ 오락가락하느뇨 <제6수>

서까래 기나 짧으나 ㉢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작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제8수>

시비(是非) 없는 후(後)이라 영욕(榮辱)이 다 불관(不關)타\*  
금서(琴書)\*를 다 홀은 후(後)에 이 몸이 한가하다  
㉣ 백구야 기사(機事)\*를 잊음은 너와 내가 하노라 <제14수>

한식(寒食) 비 온 밤의 ㉤ 봄빛이 다 피졌다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제17수>

창(窓)밖의 위석머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슨 일이고  
어즈버 유한(有恨)한 간장(肝腸)이 다 끊길까 하노라 <제19수>

꽃 지고 속잎 나니 시절도 변(變)하였다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야 날아다닌다  
 뉘라서 조화(造化)를 잡아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고  
 <제26수>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眞實)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제2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천말부운: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  
 \*만산나월: 산 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  
 \*불관타: 상관없다. \*금서: 거문고와 책.  
 \*기사: 욕심. \*혜란 혜경: 난초 핀 좁은 길.

10.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겨울에 송죽만 푸른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 ② ㉡: 조화로운 자연 풍경을 어지럽히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 ③ ㉢: 화자가 거처하는 집의 만듭새가 영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한식날 밤, 비 내린 뒤에 봄꽃이 만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시름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의 효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고, ㉡은 예찬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기쁨을 느끼는 대상이고, ㉡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③ ㉠은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은 도덕적 삶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⑤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겨울에 송죽만 푸른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 ② ㉡: 조화로운 자연 풍경을 어지럽히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 ③ ㉢: 화자가 거처하는 집의 만듭새가 영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한식날 밤, 비 내린 뒤에 봄꽃이 만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시름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의 효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13. (가)에 언급된 ‘시간 관련 표지어’에 주목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 자연물인 ‘눈’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화자가 처해 있는 고독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6수>: 자연물인 ‘눈’을 시간 관련 표지어로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려 주고,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세상에 대한 좌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8수>: 자연물인 ‘만산나월’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려 주고,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7수>: 자연물인 ‘화류’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비’라는 소재를 통해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제26수>: 자연물인 ‘꽃’과 ‘속잎’을 시간 관련 표지어로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임을 알려 주고, ‘풀’이라는 소재를 통해 입을 향한 그리움의 정념을 표출하고 있다.

14.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3수>는 ‘송죽’과 ‘초목’을 비교하며,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대결 의지와 정신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② <제8수>는 ‘수간모옥’에 대한 세간의 비웃음을 반박하며, 세상사에 진력이 난 화자가 전원생활에서 얻은 삶의 만족감과 정신적 위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제14수>는 ‘시비’를 다투는 세상에서 떨어진 후에 얻은 만족감을 제시하며, 정쟁의 경험이 화자가 세상에 염증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④ <제19수>는 ‘간장’이 다 끊어지려 한다는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된 화자가 삶을 성찰하면서 느끼는 후회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제29수>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노래’의 효용을 추측해 보면서, 작품의 창작 동기가 화자가 겪은 정치적 시련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문(學文)을 후려 치우고 반무(反武)\*를 한 뜻은 삼척검(三尺劍) 둘러메고 진심보국(盡心報國)하려 했더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제1수>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 밖에 다시없다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 이 원수(怨讎) 못내 갚을까 칼만 갖고 있노라 <제3수>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거든 서러운지고 국가 간위(艱危)\*를 알 이 없어 ㉡서러운지고 아무나 이 간위 알아 구중천(九重天)\*에 사죄소서 <제6수>

[A]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孤立無助)는 임이신가 하노라 <제14수>

[B]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하리이다 <제16수>

[C]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집만 돌아보고 나랏일 아니 하네 하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오 <제26수>

공명(功名)을 원(願)찮거든 부귀(富貴)인들 바랄소냐 일간모옥(一間茅屋)에 고초(苦楚)히 혼자 앉아 밤낮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위하노라 <제28수>  
- 이덕일, 「우국가(憂國歌)」

\*반무: 문관이 무관이 됨. \*간위: 어려움과 위기.  
\*구중천: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탕탕평평: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

15.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B]는 문제 상황이 초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A]는 문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B]는 문제 상황 해결

- 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 ③ [A]는 문제 상황과 관련해 상대방의 과오를 비판하고, [B]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
  - ④ [A]에 제시한 문제 상황과 관련해 [B]는 그 해결의 책임이 화자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A]에 제시한 문제 상황을, [B]에 언급한 역사적 사례를 참고해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6. <보기1>을 참고하여 [C]와 <보기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조선 시대에는 사회와 당쟁, 왜란과 호란 등 크고 작은 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이 시조로 형상화되곤 하였다. 우국의 형상화 방식은 소재와 표현법, 화자의 어조와 작품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 기 2>—————  
어와 버힐시고\* 낙락장송(落落長松) 버힐시고  
저근덧 두던들 동량재(棟梁材)\* 되리러니  
어즈버 명당(明堂)이 기울거든 무엇으로 버티려뇨  
-정철  
\*버힐시고: 베었구나. \*동량재: 대들보로 쓸 재목

- ① [C]와 <보기 2>는 모두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C]와 <보기 2>는 모두 탄식의 어조를 통해 우국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와 <보기 2>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라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C]와 <보기 2>는 모두 가정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와 <보기 2>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나라의 혼란이 야기할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무감각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에서 화자는 불우한 처지에도 한결같이 나라를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에 담긴 화자의 정서는 ㉠과 달리 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⑤ ㉢에 담긴 화자의 정서는 ㉠의 정서를 유발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국가」 28수는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 이덕일이 고향 함평에 머물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작품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무과에 급제한 인물로,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시조인 「우국가」는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조를 지닌다. <제1수>는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28수>는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관료의 무능과 봉당 간 정쟁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임금에 향한 근심과 애정,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 등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제시되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반무를 한 뜻'이 '진심보국'하려는 데 있었다는 표현은 화자가 학문을 버리고 무를 선택하게 되었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3수>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 '칼만 갖고 있노라'라고 한 것은 임진왜란 때 무관으로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침범한 적들을 향한 비분강개한 심정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4수>에서 '이 중에 고립무조는 임이신가 하노라'라고 한 것은 봉당 간 정쟁에 대한 비판과 그로 말미암아 고달픈 처지에 놓인 임금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16수>에서 '말리소서 말리소서'라고 한 것은 전란의 체험에서 얻은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으로서 화자가 임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28수>에서 '공명'도 '부귀'도 바라지 않는다고 한 것은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순수한 우국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사 문학의 세계에서 태평성대와 성은(聖恩)을 노래했던 조선 전기의 문학적 경향과는 달리 조선 후기에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가사 작품이 등장하였다. 특히 19세기 전반은 왕권이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수령과 아전에 의한 수탈이 심해져, 백성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마련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관아에 끌려가 형벌을 받기도 하였다. 가장을 잃은 가정의 고난은 더 가중되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軍籍)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고 군포(軍布)를 받던 백골징포(白骨徵布)로 인해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 (가)와 (나)이다.

전자는 경상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수탈과 횡포를 일삼는 상황을 제시하며 당대 백성들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고, 후자는 지방 하층 사족(士族)으로 추정되는 작가가 관리-백성의 관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측면에서 두 작품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

거창지경(居昌之境)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례  
 네 읍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結卜)\* 상징(詳定)할 제  
 타읍은 열한두 냥 민간에 출질(出秩)하고  
 거창은 십육칠 냥 해마다 가증(加增)하네  
 타읍도 목상납(木上納)\*을 호조혜청(戶曹惠廳) 봉상하고  
 본 읍도 목상납을 호조혜청 봉상하니  
 다 같은 왕민(王民)으로 왕세(王稅)를 같이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사오 냥씩 가증하노  
 더구나 원통할사 백사장의 결복이라  
 ㉠ 근래에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절통타 우리 백성 재\* 한 짐 못 먹어라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건  
 마는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투식(中間偷食) 뉘 하시고  
 가포(價布)\* 중 악생포(樂生布)는 제일 심한 가포라  
 삼사 년 내려오며 탐학(貪虐)이 더욱 심하다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한 고을을 엮어매어 침탈하며  
 많으면 일이백 냥 적으면 칠팔십 냥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蕩產)하고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록군병(水陸軍兵) 던져두고  
 선무포 제번포며 인리포 노령포라  
 명색(名色) 다른 저 가포를 백 가지로 침책(侵責)\*하니  
 김(金)담사리 박(朴)담사리 큰 애기며 작은 애기\*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작청(鄉作廳)에 잡혔단다  
 ㉡ 앞마을에 짓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 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우지 마라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黃口簽丁) 가련하다  
 생민가포(生民價布) 던져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 무슨 일  
 고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너 죽은 지 몇 해관대 가포 돈이 어인 일고  
 관문(關門)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커든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설다  
 가포탈\*할 제 원정(冤情)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 월락삼경(月落三更) 깊은 밤과 천음우습(天陰雨霽) 슬픈  
 밤에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東軒) 하늘 함께 운다  
 청산(靑山) 백수(白首)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엄동설한 진진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남산(南山)에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갈아 주며  
 동원(東園)에 익은 술을 뉘 데리고 화답(和答)하고  
 어린 자식 아버 불러 어미 간장 녹여 낸다  
 엽엽히 우는 자식 배고파 설워하며  
 가장(家長) 생각 설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난다  
 흉악하다 저 주인 놈 과부 손목 끌어내어  
 가포 돈 던져두고 차사(差使)의 관습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베를 탈취하여 가단 말가

(중략)

청천(靑天)의 외기러기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上林園)\*을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중이에 세세민정(細細民情) 그려다  
 가

[A]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別般) 처분 내리소서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禁府都事) 내리나니  
 자루 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어와 백성들이 연후(然後)의 태평세계(太平世界)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오리라  
 - 작자 미상, 「거창가(居昌歌)」

- \*결복: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집, 못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목상납: 나라에 바치던 세금이나 물건을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던 일.
- \*낙강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 버린 모래가 언덕과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
- \*재: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 감면의 혜택.
- \*재결: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 \*회감: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 \*가포: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 \*침책: 조선 시대에, 물품을 거두어들일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던 일.
-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 애기며 작은 애기: 가짜 이름과 거짓 기록을 가리키는 말.
- \*노방강시: 길가에서 열어 죽은 시체.
- \*가포탈: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어 포탈하던 일.
- \*상림원: 천자의 동산 이름으로,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말함.

(나)

문무 양반 목민(牧民) 중의 학민(虐民)\*하는 원님네들

①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성(城)안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 저리 다르시고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삭았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②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네  
 착한 본성 잃은 속에 자기 욕심 길러 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선사양전(善事兩銓)\*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 하여  
 보소

- 작자 미상, 「향산별곡(香山別曲)」

- \*학민: 백성을 가혹하게 다룸.
- \*사단지목: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룸.
- \*선사양전: 이조 전랑과 호조 전랑을 잘 섬김.
- \*자목백성: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림을 이르던 말.

19.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오 냥씩 가증'하는 거창의 상황을 제시하며 '원통'함을 표현한 부분은, 수탈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백성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나라의 정책과 상관없이 '중간투식'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대 거창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수령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탐학'이 가해진 기간 동안 '본 읍'에 일어난 변화를 제시한 부분은, 백성들이 비리의 주체들로 인해 세금을 마련하다가 파산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 애기며 작은 애기'를 부르며 '어서 가고 바빠 가자'고 권하는 부분은, 아전들로부터 수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그대'가 짠 '베를 탈취'하는 '주인'의 모습을 언급한 부분은, 백골징포로 여성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관아에서 형벌을 받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형이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특정인에 대한 동물과 인간의 반응을 차례로 제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여 현재 상황이 지닌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발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대방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자신의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21. <보기>는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이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학생이 <보기>의 ㉠~㉣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특히 (가)의 [A]와 (나)에 드러난 화자의 모습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타인의 탓을 하거나 ㉢현실에 대한 절망감만 드러낸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이는 문학 작품에서 흔히 만나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 ① ㉠: (가)의 [A]에서 화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태평세계’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 ② ㉡: (가)의 [A]에서 화자는 ‘임금’이 자신의 소망을 외면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 ③ ㉢: (가)의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반대되는 ‘외기러기’를 보며 현재 상황에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 ④ ㉣: (나)에서 화자는 관리가 부임한 뒤 ‘총명인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부임 전부터 학문 수양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 ⑤ ㉤: (나)에서 화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목백성’을 언급하며 관리들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엿그제 끓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하더니

[A]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나**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문

[B]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C]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꿇쳐세라

㉔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  
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D] 우리 입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입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입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삼생: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월하: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늬은이. 중국 당나라의 위고(韋固)가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나 장래의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함.  
\*다시: 시기(猜忌)가 많음.  
\*면목가증: 얼굴 생김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백마 금편: 흰말과 금 채찍. 사내의 호사스러운 기마 풍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약수: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22.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과거를 회상하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조심스러웠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B]: 자연물을 묘사하여 화자의 외로움이 시간을 경과하며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 의문문의 형식으로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D]: 옛이야기 속 주인공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23. 문맥을 고려할 때, <보기>의 ㉔, ㉕와 관련지어 ㉓~㉔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규원가」에는 ㉔규방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뿐만 아니라, ㉕쓸쓸한 현재의 나날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씩씩함도 나타나 있다.

- ① ㉓의 ‘엇그제’는 젊은 날이 지나가 버렸음을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로, ㉔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 ② ㉔의 ‘겨오’는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간절한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로, ㉕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 ③ ㉔의 ‘어디’는 아름답던 자신의 외모가 사라져 씩씩해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로, ㉕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 ④ ㉔의 ‘어디어디’는 입의 행방을 짐작하기 어려워 한탄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로, ㉕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 ⑤ ㉔의 ‘차라리’는 현실에서는 입을 만날 수 없어 체념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로, ㉕의 주제 의식을 뒷받침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시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심리학에서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한다. 이때, 내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자질이 이유가 되어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 운(運) 등의 영향으로 사태가 일어났다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귀인’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사태를 납득시키고자 가동하는 심리적 기제로, 원인을 파악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귀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 ①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에는 사건을 해석하는데 운이라는 외적 요인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필소냐’에는 입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화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며 내적 요인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에는 화자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 귀인 오류를 범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우리 입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렸관대’에는 입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위해 외적요인으로 사건을 설명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⑤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에는 이별이라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내적 요인으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㉓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塵)\* 장할시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중략)

도자전(刀子塵)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용잠(龍簪)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  
 포잠(菖蒲簪)과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A] 노리개 불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밀화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끈 술 끈 술 갖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요지연과  
 광분양\* 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지도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다락벽 계전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횡축(橫軸)을 불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주나라 강태공이 궁팔십 노옹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끈은 낚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 모양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 한산거사, 「한양가(漢陽歌)」

\*백각전: 조선 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상점들. \*민족절: 아무 모양도 새기지 않은 대나무 비녀.  
 \*밀화지환: 보석의 일종인 호박으로 만든 가락지. \*병풍차: 병풍을 꾸밀 그림이나 글씨.  
 \*광분양: 당나라의 명장으로 높은 공을 세우고 많은 복을 누린 사람으로 유명함.  
 \*소상팔경: 중국 소수와 상수 일대의 여덟 군데 빼어난 경치. \*상산사호: 중국 진나라 말기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명의 은사(隱士)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군.
- ② 가사의 4음보 율격에서 벗어난 개성적인 형식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목격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청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군.
- ④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을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군.
- ⑤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결합해 공간의 분위기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군.

26.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부리로 들입다 팍 찍으니 두 고패\* 둥글어지며, 머  
 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에서 진시황제 저격하다 버금  
 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똑딱 푸드푸드득 변통 없이 치었  
 구나.

- 작자 미상, 「장끼전」

\*고패: 썩 잡는 틀에 목을 조르게 되어 있는 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보기>에는 모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③ [A]에는 대상에 대한 감탄이, <보기>에는 대상을 희화화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④ [A]에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보기>에는 타자의 행위에 대한 조롱이 나타나고 있다.
- ⑤ [A]에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보기>에는 궁핍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27. <보기>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한양가」는 조선 후기 한양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입니다. 한양의 지리와 관청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고, 시장의 모습이 묘사되어 당시 사람들이 소비했던 물품들도 알 수 있지요. 자, ㉠~㉣을 통해 당시 한양 사람들의 문화를 추리해 볼까요?

- ① ㉠을 보니 다른 나라의 생산품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군요.
- ② ㉡을 보면 당시 값비싼 패물들도 소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보니 외국의 명승지를 그림을 통해 완상하기도 했었나 보네요.
- ④ ㉣을 보면 소설의 인상적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감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보니 바둑이 이 시기에 전파되어 새로운 놀이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군요.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래안부(近來安否)가 문여하(問如何)요 ㉠월도사창(月到紗窓)에 첩한다(妾恨多)\*인데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砂)\*로구나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花容)이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강산불변재봉춘(江山不變再逢春)\*이요 임은 일거(一去)에 무소식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인생일장(人生一場)은 춘몽(春夢)이 되고 세상공명(世上功名) 꿈박이로구나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추야공산(秋夜空山)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 할까요

㉤일락서산(日落西山)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솟아 온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啞然)하여 나 어이 할까요

친구가 본관은 남이런만은 어이 그다지도 유정(有情) 탄 말이오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며는 그리워 아 어찌잔 말이오

계변양류(溪邊楊柳)는 사사록(絲絲綠)이요 무릉도화(武陵桃花)는 점점홍(點點紅)이로구나

생각 사사로 이미롭지 못하여 나 어이 할까요

난사(亂事)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겁난사로구나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 볼까요

청포(靑袍)로 일상만리선(一上萬里船)\*하니 동정여천(洞庭如天)이 파시추(波始秋)\*로구나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 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오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 누나

[A]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 할까요

아 자귀야 우지를 마라 울 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관한등(旅館寒燈)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오

무심(無心)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입 생각 저절로 나누나

청춘홍안(靑春紅顏)을 애연(哀然)타 말고 마음대로 노 잔다

- 작자 미상, 「수심가(愁心歌)」

\*월도사창에 첩한다: 첩은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음.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만약 나의 꿈속의 혼이 자취 있다면.

\*문전석로가 반성사: 임의 집 앞 돌길이 닳아서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임.

\*강산불변재봉춘: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다시 옵니다.

\*청포로 일상만리선: 청포를 입고 만 리를 가는 배에 오름.

\*동정여천이 파시추: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아 물결이 가을을 알림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 후렴은 사설의 각 연(聯) 끝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가리킨다. 후렴은 한 단어로만 된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 단위 이상의 길이로 되어 있으며 무의미한 소리나 말로 된 것, 유의미한 말로 된 것, 그 둘이 섞인 것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후렴은 리듬을 조성하고 내용상 연과 연을 구분하게 해 주는 한편, 사설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과 정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민요에서 사설부의 정서가 구체적이고 일시적이라면 후렴부의 정서는 지속적이면서 집약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 ① 후렴에서 의문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근심을 강조한다.
- ② 후렴이 연과 연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 줌으로써 시적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 ③ 후렴의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되기도 하고, 유사한 구절로 변주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④ 후렴은 각 연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설부의 정서를 공통된 정서로 집약하여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 ⑤ 후렴은 행 단위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무의미한 음성 상징어와 유의미한 말이 섞여 나타나고 있다.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첩한다’를 통해 남성 화자가 여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반성사’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강산’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을 통해 화자를 향한 임의 사랑이 영원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피어난 모습은 화자가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 ‘해’와 ‘달’과 관련된 현상을 의미가 중복되게 표현하여 떠나 버린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평안도 민요 「수심가」는 수많은 이형(異形)이 존재한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되면서 ‘인생무상(人生無常)’과 ‘상사(相思)’의 주제 의식을 유지한 채 가창하는 사람에 따라 사설의 변형이 거듭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형 간 사설은 공유되거나, 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으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수심가」의 한 이형이다.

[D] 인생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공명은 꿈박이로구나  
아니 놀고 아니나 쓰지는 못하리로구나  
아생편곡군지부 일락인간만중수\*라  
인생 백 년을 생각을 하면 춘몽이로구나  
명산대천에 불공을 말고 타관객리에 외로운 사람의  
팔시를 말어라  
일구월심에 밋을 곳이 발나서\* 못 사리로구나  
남산 송정에 홀로 앉아 우는 접동아  
임 죽은 혼신인지 이내 심사를 수심케 하누나

\*아생편곡군지부(兒生便哭君知不) 일락인간만중수(一落人間萬種愁):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아는가. 인간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만 가지 근심이 시작되네.  
\*발나서: ‘없어서’의 방언.

- ① [A]에서는 ‘자귀’가, [B]에서는 ‘접동’이 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군.
- ② [A]의 화자는 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B]의 화자는 놀고 싶은 의지를 끝내 부정하고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 ③ [A]에 나타나는 특정 노랫말이 [B]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형 간에 사설을 공유한 사실을 알 수 있군.
- ④ [B]와 달리 [A]에서는 ‘임’이 유일한 ‘상사’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군.
- ⑤ [A]와 [B] 모두에서 ‘인생무상’을 종교에 대한 헌신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는 기존에 창작되었던 시조나 가사, 민요, 판소리 등 여러 시가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문학이라 볼 수 있는데, 패러디하는 선행 장르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를 ‘가사계 잡가’, 판소리인 경우를 ‘판소리계 잡가’라고 한다.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이 ‘영산가’라는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나)는 4음보 연속체라는 형식과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하며, 한자어나 중국 고사와 같은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 가사와의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식의 파격이 나타나거나 자연을 단순한 유희 및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대부 가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사대부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판소리계 잡가는 「춘향가」를 패러디한 (다)와같이 선행했던 판소리의 대목 중 향유층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패러디하면서 축약, 변형, 확대하고, 그것을 논리적 연관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중요 대목의 담론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나)

[A]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B]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피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피꼬리  
황금 갑옷 펼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화류 장대(章臺) 고운 여자

[C]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끄적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①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D]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  
사구평대(沙丘坪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青草)  
속절없다\*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死後留名) 되려니와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유명(死後留名) 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 한번 끄적 죽어지면

[D]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방상\* 댕돌 위에  
두렷이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긋은비는 세우 섞어 함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터를 닦아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두견새로 벼슬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산은 요요 물은 광광 이것이 낙이로다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 하리  
노류장화(路柳牆花)\*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  
아 보세

- 작자 미상, 「영산가(命山歌)」

\*영산홍록: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하여 산을 붉고 푸르게 덮음.  
\*비류직하삼천척 / 의시은하낙구천: 삼천 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네. 이백(李白)의 「망여산폭포」의 한 구절.  
\*사구평대 ~ 속절없다: '사구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  
황이 묻힌 곳으로, 인생무상을 의미함.  
\*칠성포: 시신을 염습한 다음에 묶는 끈으로 사용하는 삼베.  
\*소방상: 좁은 곳에 사용하는 작은 상여.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  
라는 뜻으로,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죽림 보인다  
대 심어 울하고 술 심어 정자라  
동편에 연당(蓮塘)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노방(路傍)에 시매오후과(時買五侯瓜)\*요 문전(門前)에 학  
종선생류(學種先生柳)\*라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추니  
저 건너 사립문 안에 삼살개 앉아  
먼 산만 바라보며 꼬리 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에 정녕 돌아오소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웬 계집이건대 나를 종종 녹이느냐  
너는 웬 계집이건대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나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華時)\*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노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  
老)로다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 리인가 어이 그리 못 보는고

- 작자 미상, 「소춘향가(小春香歌)」

\*노방에 시매오후과: 길가에서는 때에 맞게 오후들이 오이를 팔고  
있음. 오후는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  
\*문전에 학종선생류: 문 앞에는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  
음. 오류 선생은 도연명의 호이며,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  
루  
를 심었다고 함.  
\*녹음방초승화시: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다  
운 때. 여름철 화사한 때를 말함.

31. (나), (다)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주변 풍경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32. 위 글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삶의 무상함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은 화자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반면, ㉡은 화자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자각하는 원인이며, ㉡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고 결심하는 이유이다.

33. (가)를 참고하여 (나)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봄날의 풍경을 언급하며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에 관해 노래한다는 점에서 사대부 가사와의 공통점에 해당하겠군.
- ② [B]는 옛글을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D]는 고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모두 상류층의 언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사대부 가사의 특징에 해당하겠군.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초로인생'에 비유한 후 이를 [E]에서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대부 가사와 다른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④ [B]와 [C]는 [D], [E]와 달리 4음보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는 형식의 파격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⑤ [B]~[E]에서는 [A]에서 제시한 풍경을 즐기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노래가 '영산가'라는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4. <보기>는 판소리 「춘향가」 사설의 일부이다.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춘향이 몽룡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전하는 장면

- 글썄, 방자야 꽃이 어찌 나비를 따라간단 말이나? 너나 어서 건너가 도령님께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찾아들며, 게는 구멍을 좇는다고 여쭙어라.

○ 방자가 몽룡에게 춘향의 집을 알려 주는 장면

- 방자 좋아라고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리키난디, 저 건너 저 건너 춘향 집 보이난디, 양양한 향풍이요, 점 점 찾아 들어가면 기화요초난 선경을 가리우고, 나무 앓은 새는 호사를 자랑헌다 ~ 송정죽림 두 사이로 은근히 보이난 것이 저것이 춘향의 집이로소이다. '좋다, 좋다! 장원이 정결허고 송죽이 울밀허니 여기지절개로다. 이에, 방자야. 책실로 돌아가자.' 도령님이 책실로 돌아와서 글을 읽되, 혼은 벌써 춘향 집으로 건너가고 등신만 앓어 노루글로 뛰어 읽겠다.

○ 춘향이 한양으로 떠난 몽룡을 그리워하는 장면

- 행국결월상심색허니 달만 비쳐도 임의 생각, 야우문령단 장성에 비만 많이 와도 임의 생각. ~ 식물감미 밥 못 먹고, 침불안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가 임 그리운 탓이로구나. 앓어 생각, 누워 생각, 생각 그칠 날이 전혀 없이, 모진 간장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이리 앓어 울음을 울며 세월을 보내는구나.

- ① 「춘향가」에서는 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다)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심정을 제시하고 있군.
- ② 「춘향가」에서는 춘향이 자연물에 빗대어 몽룡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전하고 있지만, (다)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춘향이 몽룡에게 자신의 집을 찾아올 것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자신의 집을 알려 주고 돌아서는 춘향을 원망하는 듯한 몽룡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춘향가」의 해당 장면을 확대하여 춘향에 대한 몽룡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④ (다)에서는 「춘향가」 중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장면과 사랑하던 두 사람이 이별한 후의 장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두 부분이 당시의 향유층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에 해당하기 때문이겠군.
- ⑤ (다)에서는 춘향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몽룡의 심정과 서로의 만남이 짧은 것을 아쉬워하는 인물의 심정을 연달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춘향가」의 장면을 논리적 연관성 없이 편집하여 제시한 것에 해당하겠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雪色白於紙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擧鞭書姓字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莫教風掃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好待主人至

- 이규보, 「설중방우인불우(雪中訪友人不遇)」

(나)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近來安否問如何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月到紗窓妾恨多  
 꿈속 냇 만약에 자취 있다면                      若使夢魂行有跡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門前石路已成沙

- 이옥봉, 「자술(自述)」

35.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상황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과장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두 소재의 유사점을 기준으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가 청자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 지시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36.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눈빛'은 계절적 배경을, (나)의 '달'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
- ② (가)의 '땅'과 (나)의 '사창'은 공간적 배경으로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 ③ (가)의 '이름'과 (나)의 '자취'에는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 ④ (가)의 '주인'과 (나)의 '냇'은 화자가 떠올린 대상으로 현실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⑤ (가)의 '채찍'은 행위의 도구, (나)의 '모래'는 반복적 행위의 결과물을 떠올리게 한다.

37. <보기>는 한시의 일반적 구성 방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맥락에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행	구	역할
1행	기(起)	어떤 대상을 보거나 떠올리면서 생각을 제시한다.
2행	승(承)	기(起)에서 제시한 생각을 이어 받아 보충한다.
3행	전(轉)	기존의 시상을 틀어 전환한다.
4행	결(結)	시상의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서, 정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 ① (가)는 눈을 보고 '종이'를 떠올리면서, (나)는 대상의 '안부'를 떠올리면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군.
- ② (가)는 '종이'와 관련된 행위를, (나)는 떠올린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이어 가고 있군.
- ③ (가)는 '바람'이 부는 상황을, (나)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림으로써 기존의 시상을 전환하고 있군.
- ④ (가)는 '종이'와 '바람'의 공통적 의미를, (나)는 '사창'과 '꿈속'의 유사한 상황을 연결해 시상의 흐름을 하나로 묶고 있군.
- ⑤ (가)는 '바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나)는 '꿈속'에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향가 「처용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신라 시대 처용이 직접 지어 부른 것이다. 관련 설화에 따르면, 처용은 집안에 침범한 역신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다만 노래를 부르고 물러나는데,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용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도망친다.

고려 가요 「처용가」는 향가 「처용가」의 관련 설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작품으로, 위협이나 명령을 통해 '벽사진경(辟邪進慶)\*'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무가(巫歌)들은 대체로 '신을 모시는 청배', '신을 찬사하는 찬신', '악귀를 쫓는 축귀', '제주(祭主)의 소원을 비는 발원'의 구조를 지니는데, 고려 가요 「처용가」도 이와 유사한 구성을 따른다.

고려 가요 「처용가」에 대한 어구 풀이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두 명의 화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향가 「처용가」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난 부분의 ‘나’는 ‘처용아비’로 보지만, 후반부의 ‘나’는 ‘제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려 가요 「처용가」에서 ‘처용아비’는 ‘열병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신(神)으로 대상화되어 있기에, ‘제주’는 ‘처용아비’를 통해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 것이었고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처용가(處容歌)」

(다)

- [A]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 [B]  십이 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아, 처용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버찌야, 오얏야, 녹리야
- [C]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어라  
 안 매어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쁜 말  
 동경 밝은 달과 밤늦도록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 [D]  아,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때 처용아비가 보시면  
 열병신이야 횃거리\*로다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아비여  
 칠보를 주겠습니까 처용아비여\*
- [E]  천금 칠보도 그만두오  
 열병신을 날 잡아 주소서  
 산이나 들이나 천 리 외에  
 처용아비를 피하여 가고저  
 아, 열병대신의 발원이시로다

- 작자 미상, 「처용가(處容歌)」

\*횃거리: 횃감. 회를 만드는 데에 쓰는 고기나 생선.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아비여 / 칠보를 주겠습니까 처용아비여:  
 본문과 달리 ‘천금을 드릴까요 처용아바 / 칠보를 드릴까요 처용아바’  
 로 해석하여, 못사람이 처용을 달래는 말로 보는 경우도 있음.

38.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는 모두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다)와 달리 어순을 바꾸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나)와 달리 유사한 형태의 질문을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대구를 활용해 화자의 외양을, (다)는 열거를 활용해 대상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누구’는 작품 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C]의 ‘누구’는 작품 안에서 ‘열병신’으로 구체화되어 있군.
- ② (나)의 상황을 [C]에 동일하게 제시한 것은 관련 설화를 떠올리게 하여 [D]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환기하려는 것이군.
- ③ (나)의 마지막 두 행이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라면, [D]의 마지막 두 행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적극적인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군.
- ④ (나)에서는 처용과 역신이 가진 힘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다)에서는 [C]와 [D]에서 역신에 대한 처용의 우위가 확인되고 있군.
- ⑤ (나)의 관련 설화에서 역신이 처용에게 한 약속은, (다)의 [D]와 같이 ‘천금’이나 ‘칠보’를 바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용되고 있군.

40. (가)의 주술적 정격과 관련지어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처용아비’를 두고 ‘십이 제국이 모두 모여 세웠다고 하여 그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찬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군.
- ② [B]는 ‘신코를 매’라는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드러내, ‘열병신’으로 인해 곱은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겠군.
- ③ [C]는 ‘열병신’이 ‘자리’에 나타난 상황을 언급해,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악귀로서 ‘열병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겠군.
- ④ [D]는 ‘열병신을 날 잡아 주소서’라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제주의 ‘발원’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겠군.
- ⑤ [E]는 ‘처용아비를 피’해 가고 싶은 ‘열병대신’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축귀’에 성공하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겠군.